



“희망세상 우리 함께 걸어요”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10월 7일 부산 초읍 어린이 대공원에서 제4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걷기 대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생명나눔부산지역본부장 원범 스님(선암사 주지), 생명나눔 이사 자인 스님을 비롯 장기 기증 회원 및 후원 회원, 투병 중인 환우와 그 가족 그리고 일반 시민 등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추대

원로회의 41차 회의서 만장일치로... 부의장 지중·명선 스님

조계종 제8대 원로의장에 현 부의장 밀운 스님이 추대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10월 10일 제 41차 회의를 열고 차기 의장단 선출과 종헌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밀운 스님 지중 스님 명선 스님

이날 회의에서 원로 스님들은 차기 의장에 밀운 스님(봉선사 조실)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수석 부의장에 지중 스님, 차석부의장에 명선 스님을 각각 추대했다. 회의에서는 지혜 스님을 제외한 23명의 원로 스님들이 참석했다.

198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발전정책과정을 수료했다.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안거한 스님은 제 5. 6. 7. 8. 9대 중앙총회와 총무원 부원장, 봉은사·봉선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총무원 부원장 때는 경승단장임을, 봉은사 주지 때 현재의 봉은사 땅을 되찾은 장본인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선대 스님들의 선업과 공덕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종단 쇄신에 대해 20여 차례가 이뤄졌고 일정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시간이 걸리는 사안들은 현재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의 소위원회가 상정한 종헌 개정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차기 회기로 이월됐다.

밀운 스님의 임기는 12월 11일부터 5년간이다. 의장으로 선출된 밀운 스님은 1934년 황해도 연백에서 출생했다. 1954년 경북 영주 초암사에서 대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비로사에서 무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71년 봉선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현 의장 종산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종단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사부대중이 종단 안정과 불교 흥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는 5대결사와 쇄신위원회의 뜻을 협조해 이 시대의 종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현대불교 법공양
ARS 후원
060-700-1080

세종시 불교포교 대책 시급

제2행정수도, 세종시 시대가 열렸다. 총리실 산하 6개 부서가 9월 14일과 15일 입주했으며,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세종시로 가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모두 36곳이다. 총리실을 물론 연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부처와 기관 12곳이 이전한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18곳이 동지를 옮길 예정이다. 서울시에는 입법부, 사법부, 외교부 등 5개 부처만 남는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규모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세종시를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은 “기존의 연기군사암연합회와 공주, 청원군 사람들이 모여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로 재창립했다”며 “지역민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인근에 있는 주요 사찰로는 구절초 축제와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장군산 영평사와 세종시청 인근의 황룡사, 천년 고찰 비암사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영평사의 경우 변화하는 종교 지형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의뢰해 사찰 발전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영평사 관계자는 “영평사는 이미 구절초 축제와 템플스테이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 포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는 세종시 출범과 관련한 사찰 발전방안을 전문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내년 초에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재된 사찰은 적지 않지만, 세종시 전반의 불교 포교 정책을 이끌 수 있는 거점 사찰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종교 부지의 분양을 통해 구심력을 가질 수 있는 사찰 건립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도 여의치 않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는 지난 8월 종교용지(협의양도, 일반 수유) 41필지를 분양했고 현재는 13필지가 분양됐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불교는 한 곳도 분양받지 않았다. 현재 13필지 중 8필지는 개인과 단체가 일반 개인이 3필지, 천주교 1필지, 원불교 1필지 입찰을 통해 분양받았다. 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관계자는 “일반 수요자가 입찰해 분양받은 토지는 종교를 알 수 없지만 현재 집게된 현황을 보면 불교 관련 용지에 대한 분양 수요가 있는 만큼 지

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실제 예정합심총회,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와 같은 개신교 단들은 세종시에 개척 교회를 건립을 이미 준비 중이다. 이미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포교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불교가 세종시에서 마저도 교세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구 밀집 지역 포교 활동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마곡사, 수덕사 등 인접지역 교구본사와 종단적 장기 대책이 시급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남태규 마곡사 종무실장은 “인근 지역 사찰과 스님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포교기금을 모연하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역 본사만으로는 힘이 부치는 부분이 많다. 총무원에 세종시 전법회관 등을 설립할 것을 제안해봤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남 종무실장은 “세종시는 정부중앙부처가 입주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본사보다는 직접 종단과 사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종단 차원에서 세종시 포교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초대합니다
창간 18주년 산사의 별미 체험

불교의 수행 정신이 담긴 사찰음식은 소박한 재료로 자연의 풍미를 그대로 살린 건강식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서울 은평구 진관사와 공동으로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며 시식할 수 있는 ‘산사의 별미 체험기행’을 마련했습니다. 장소와 실습 공간이 한정된 관계로 창간 18주년에 맞춰 18분만 선착순으로 초대합니다. 사찰기행을 겸한 이번 행사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 10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 은평구 진관동 354 진관사
▲내용 : 사찰음식 실습 및 별미 체험
▲접수마감 : 10월 24일(선착순 마감)
▲신청접수 : (02)2004-8212
▲참가비 : 3만원
▲계좌 : 국민은행 245-25-0001-46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8주년 특집 48면 발행

A 종합	2·3
조계종, 교육원·삼장원·정토원 추진 공직자 종교차별 75%, 국감서 지적	
시방세계	5
조계종 교육원 경주 남산 불적 답사	
신행	6
전국 사찰 개산대제 일정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	28
① 양곤-쉐다곤 파고다	
B 특집·사이버 신행&포교	
사이버 신행&포교 현황과 과제	1
신행카페 / 주목 불교계 ‘이 카페’	2·3
사이버 교육	4
스마트폰 시대	6·7
인터넷 미디어	8
사이버 포교 제언	9
석전 박한영 축전	10
덕암 스님 탄생 1백주년 대법회	11

법인 설립공고 및 복지법인 회원종단 등록안내

본 복지법인과 산하 법인에서는 인연있는 종단과 전국사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등록 가입비는 일체 무료이며 법인 목적 사업에 따르는 최소 경비를 후원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전국사실사암단체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신앙총연합회

사단법인 전국사실사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대명 | 법인종단관리위원장 무공 | 중앙총회회장 보각 | 대외협력위원장 성철 | 회장 각운 | 총재 각성 | 기획실장 양범수 | 영업이사 양위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412호
전화 02)2198-5022(대) 2198-5023-4 팩스 02)2198-5025 H.P 010-4167-3666 E-mail : jonggyo119@hanmail.net http://www.kntga.or.kr